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35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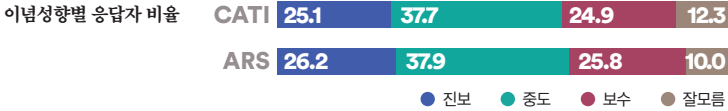
제50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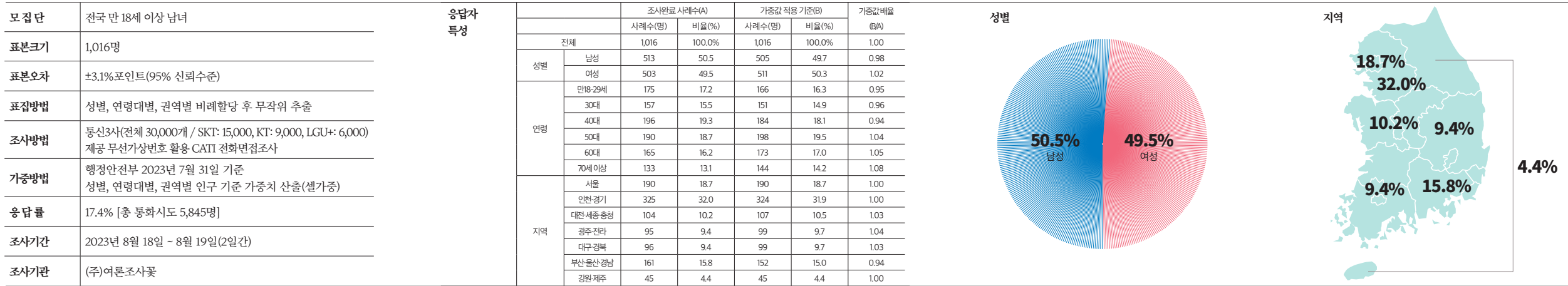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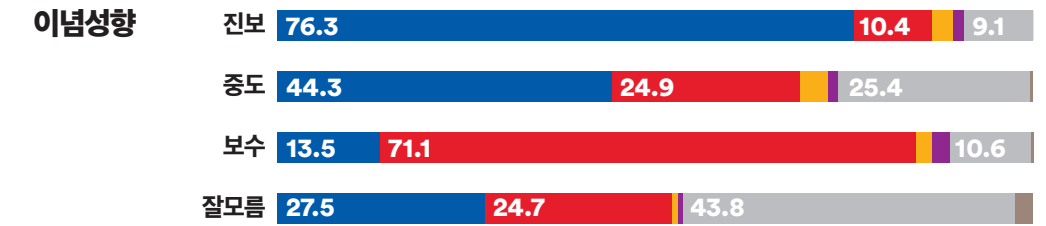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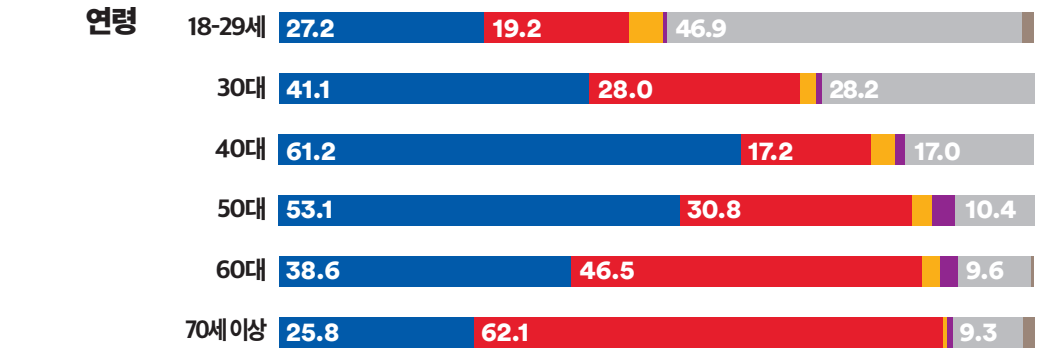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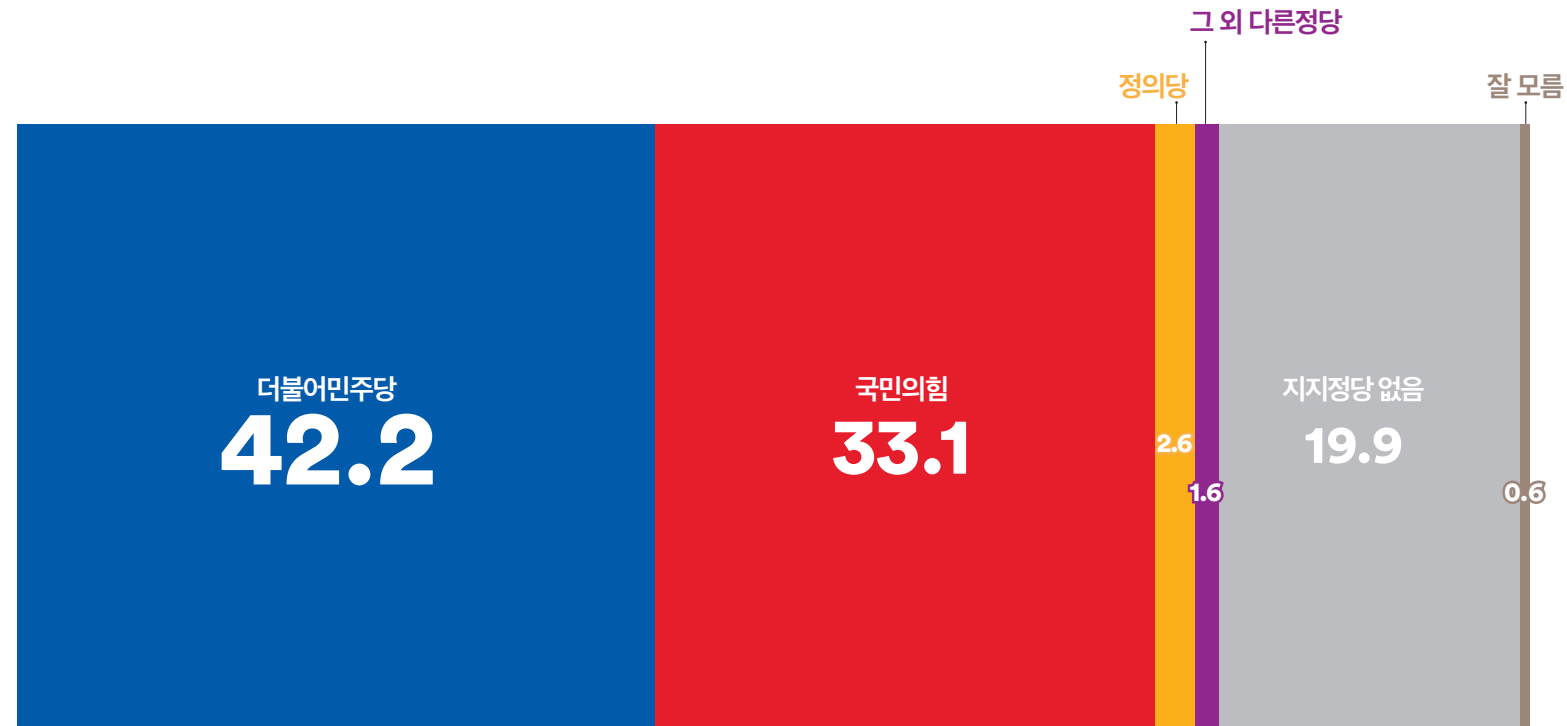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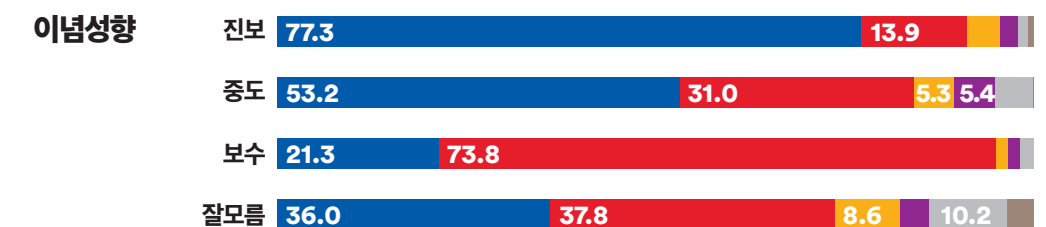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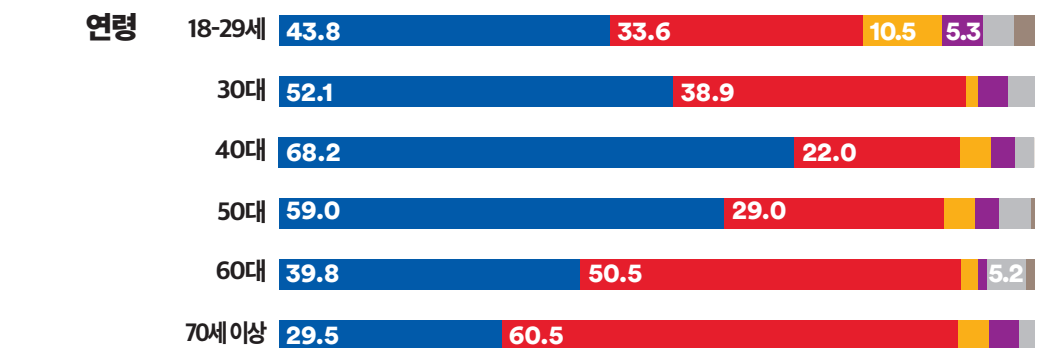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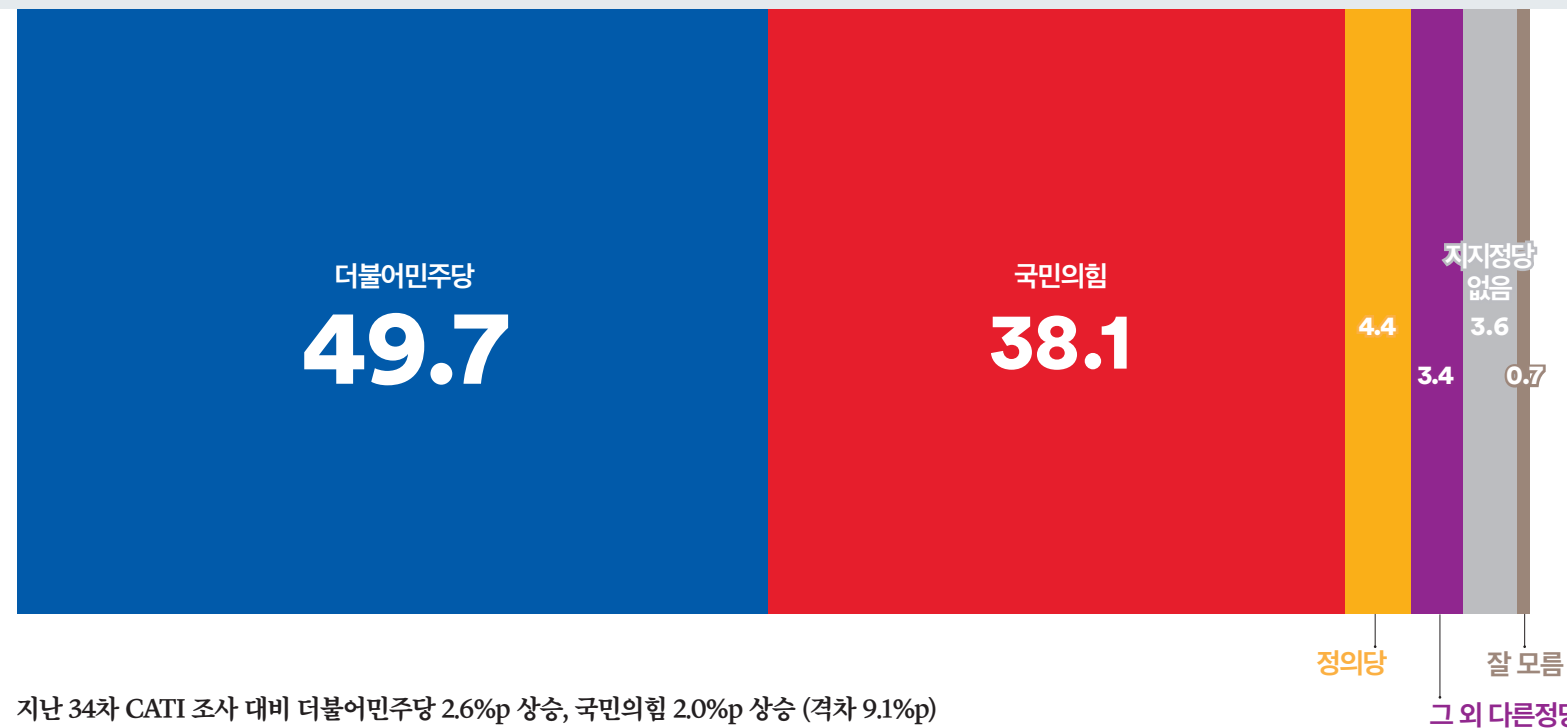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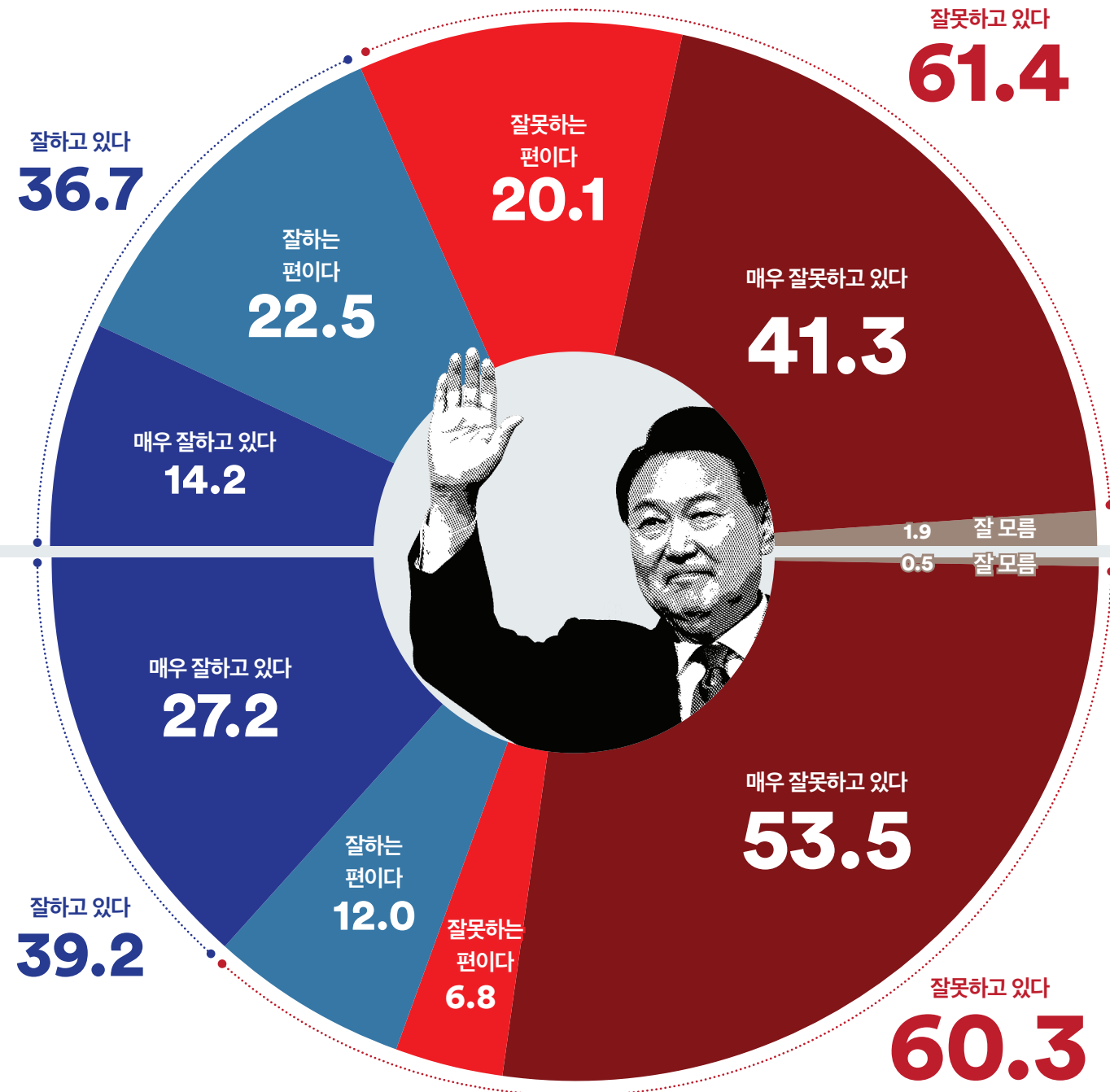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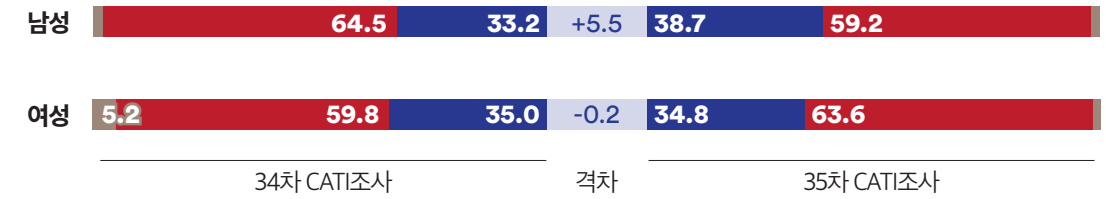
지난 34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6%p 상승, 국민의힘 2.0%p 상승 (격차 9.1%p)
 지난 49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4%p 하락, 국민의힘 0.4%p 상승 (격차 11.6%p)
 50대 이하, 진보층·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60대 이상, 보수층은 국민의힘 우세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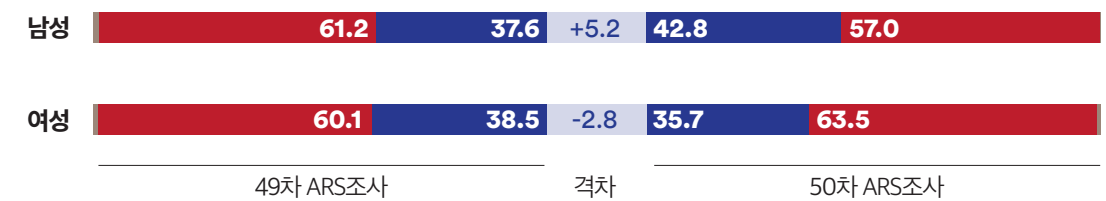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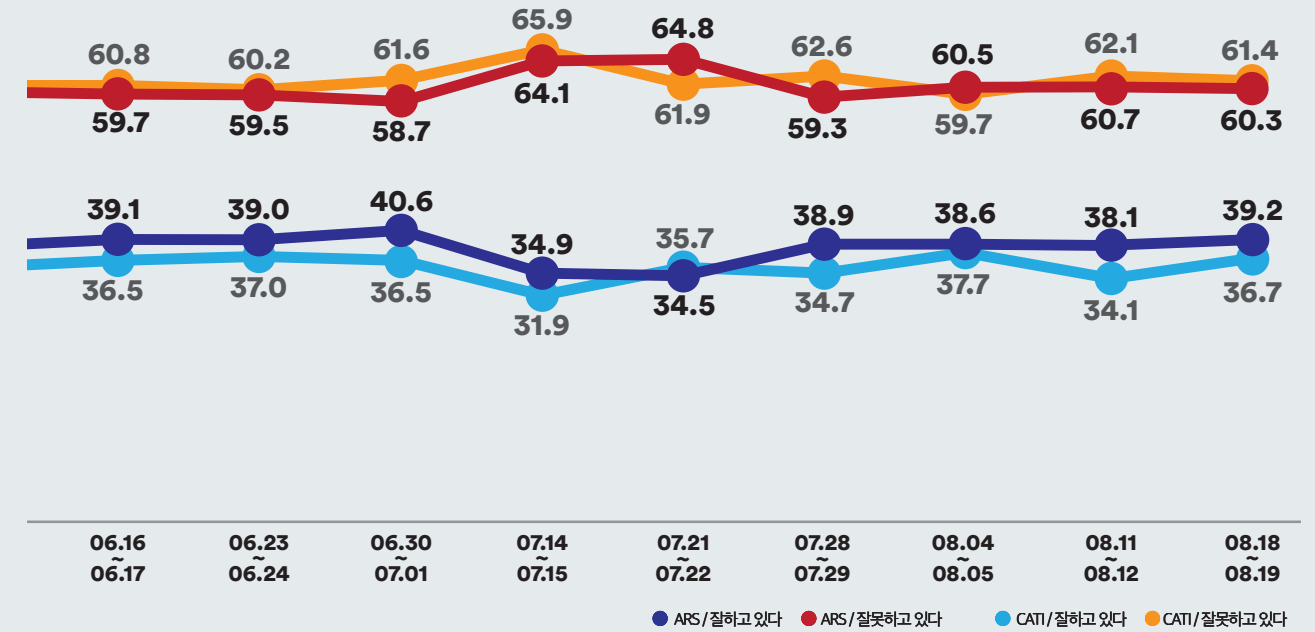
CATI



지난 34차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2.6%p 상승, 부정평가 0.7%p 하락 (격차 24.7%p)
 지난 49차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1.1%p 상승, 부정평가 0.4%p 하락 (격차 21.1%p)
 50대 이하는 부정 평가, 60세 이상은 긍정 평가 앞섬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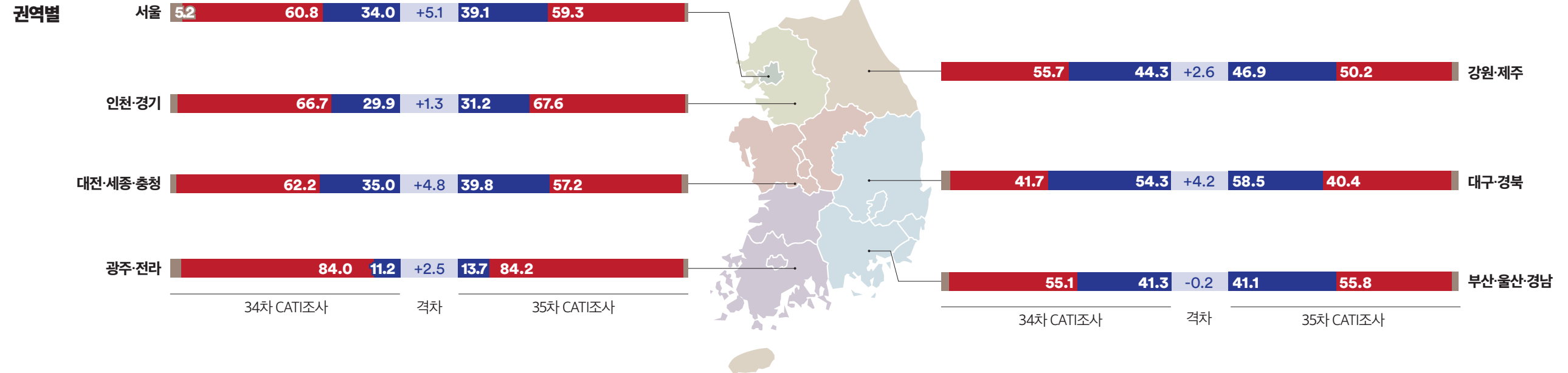


격차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는 편이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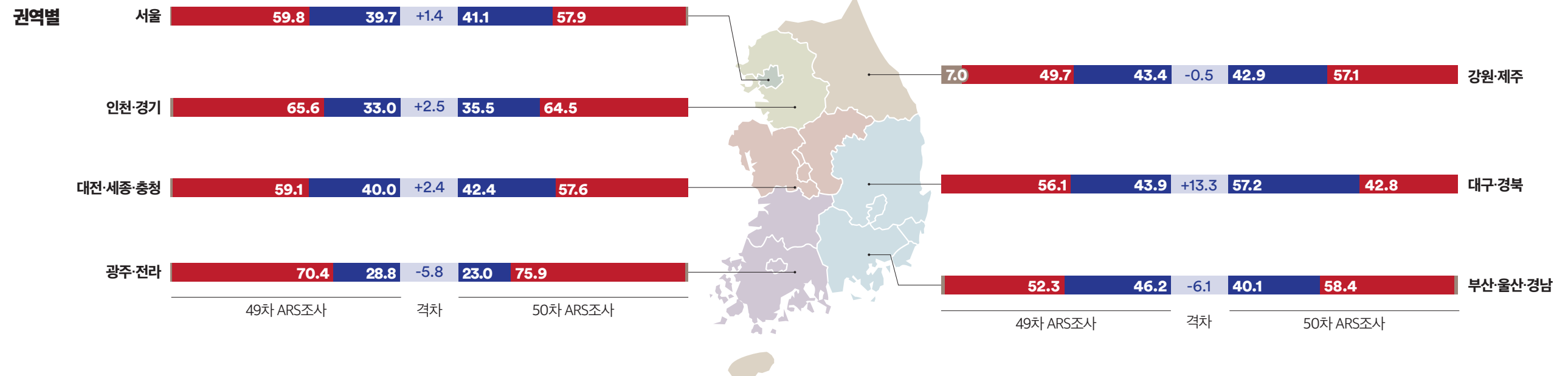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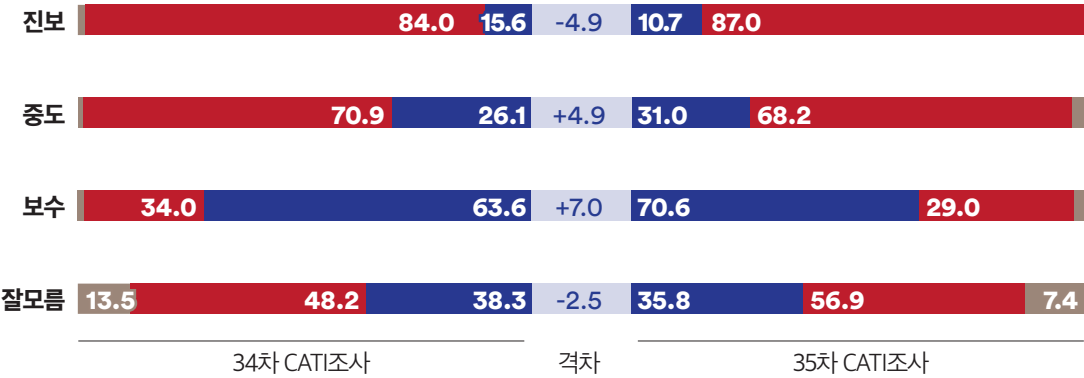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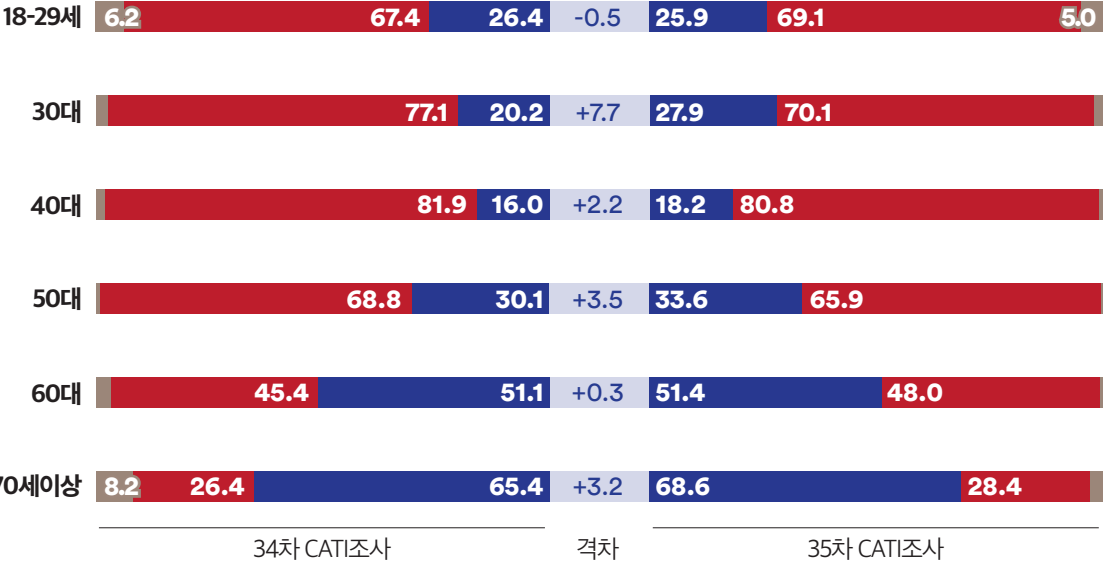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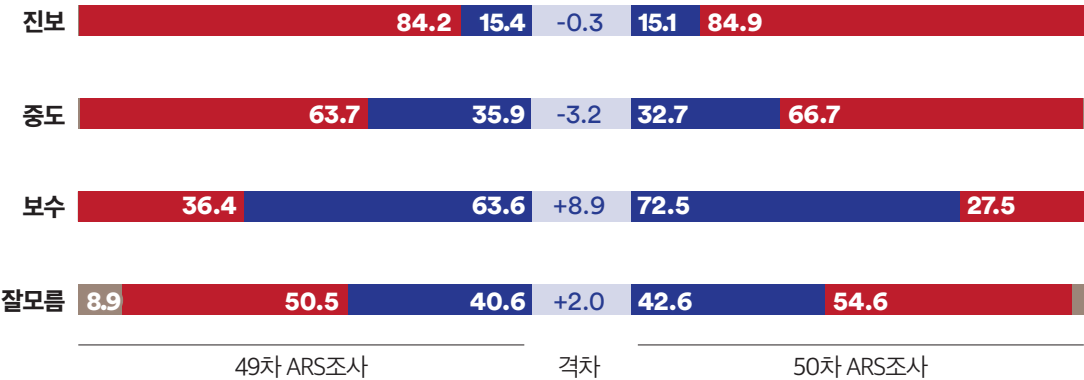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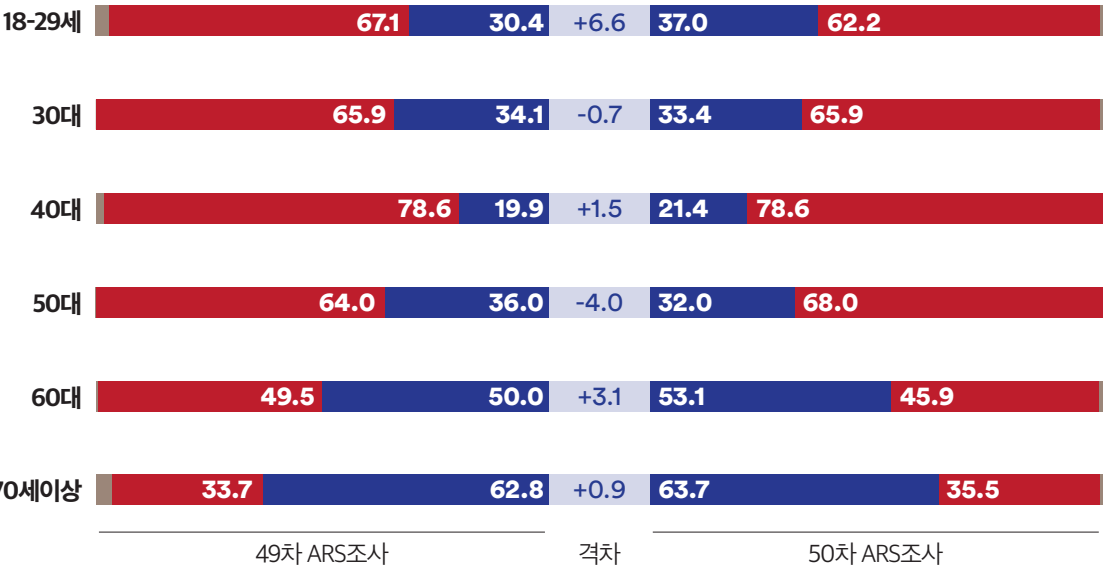


ARS

이념성향



연령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서 “민주·인권·진보를 가장해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이 활개 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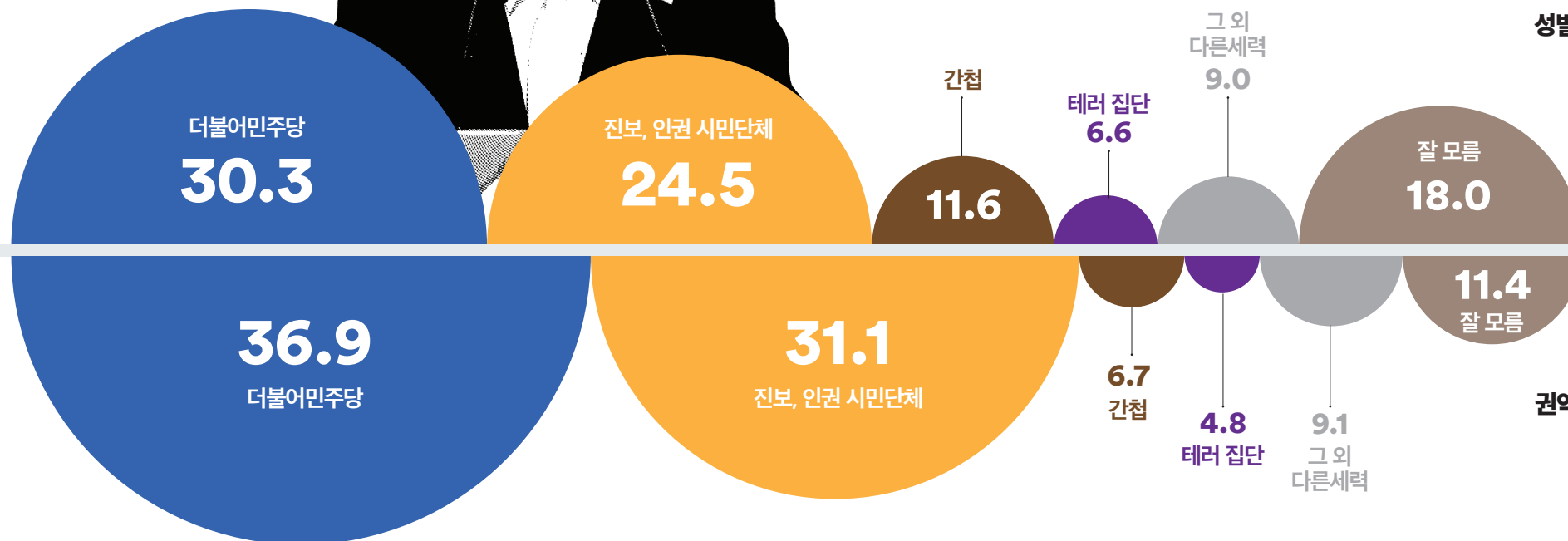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아이피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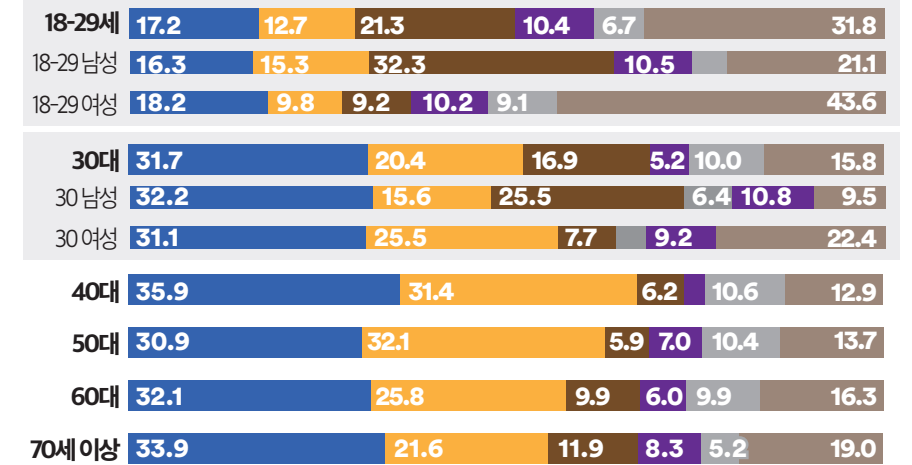
[2023.8.15,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 중]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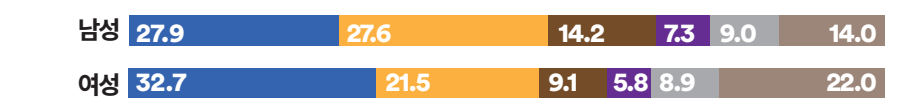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 '진보, 인권 시민단체', '간첩', '테러 집단' 순
 두 조사 모두 대부분의 권역과 연령에서 '더불어민주당'이란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CATI 조사의 충청권에서는 '진보, 인권시민단체'이란 응답이 가장 많음
 두 조사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란 응답이 가장 앞섰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인권시민단체'란 응답이 백중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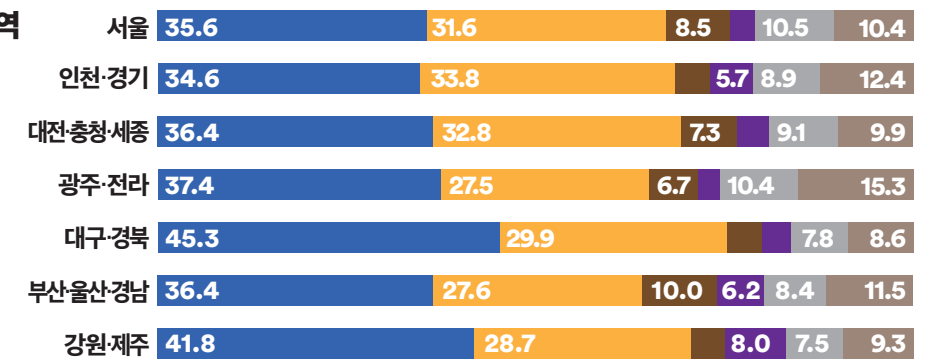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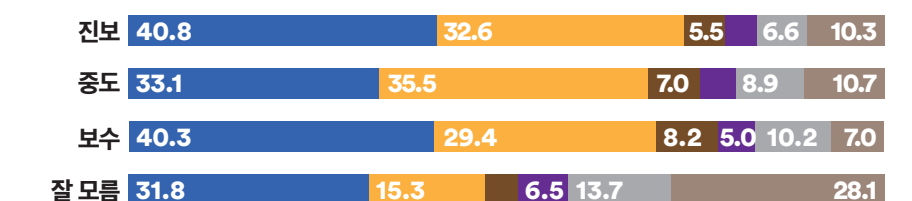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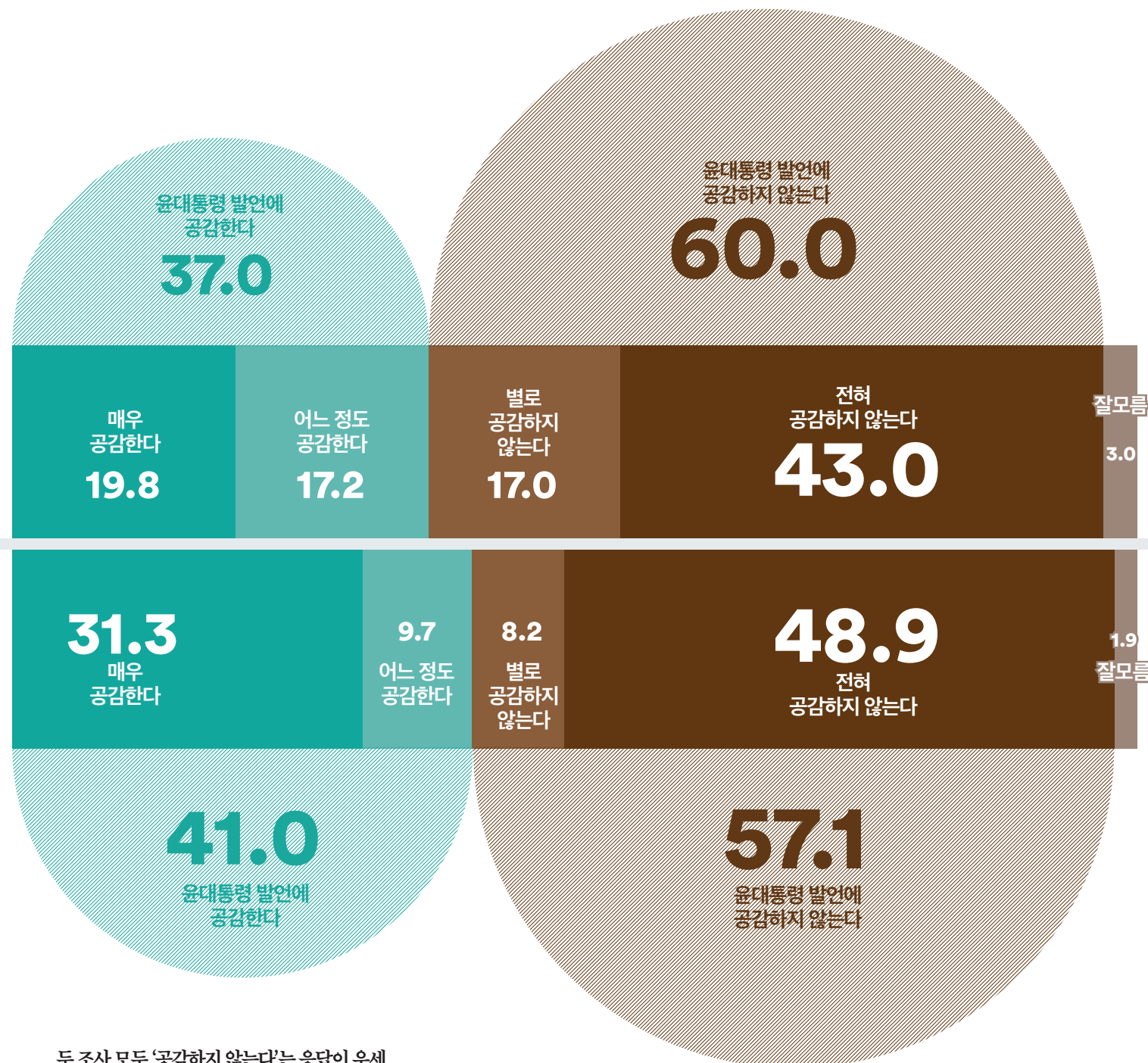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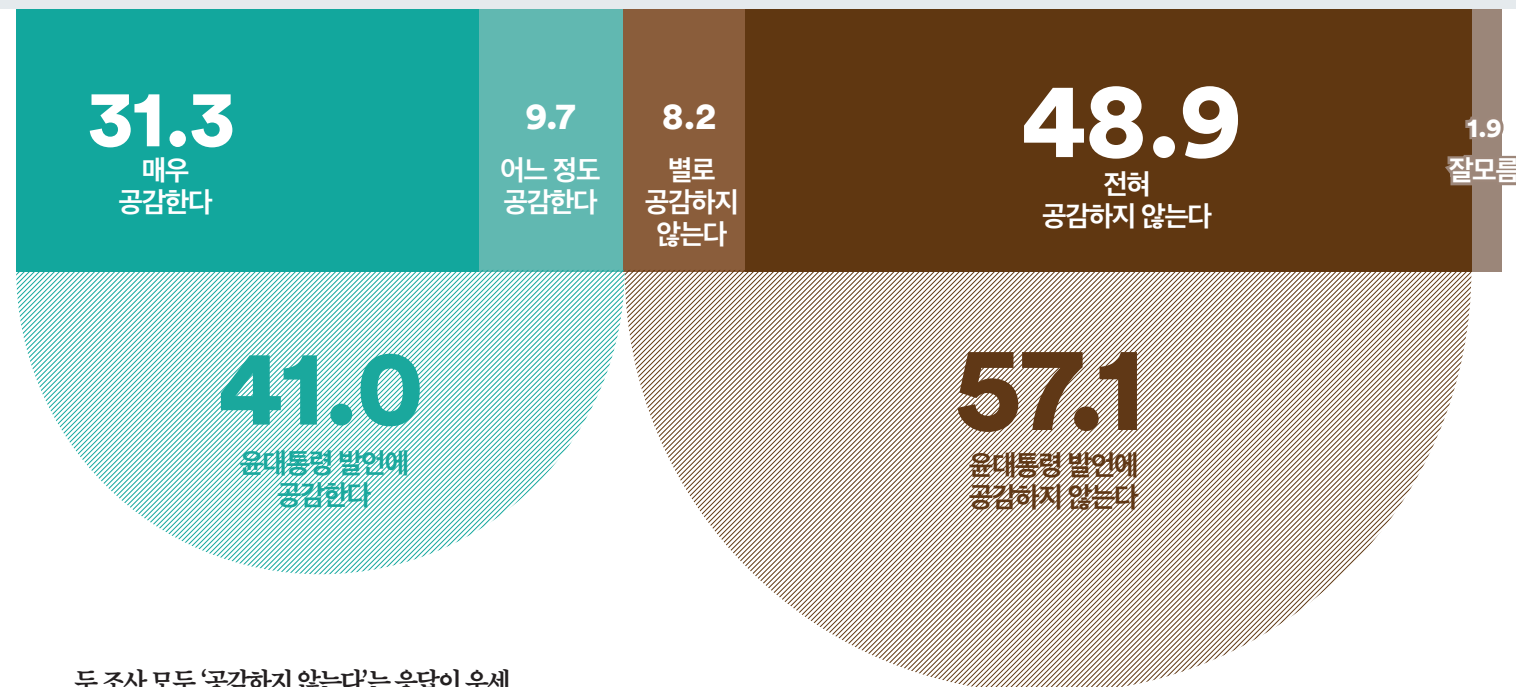


Q. “민주·인권·진보를 가장해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이 활개 치고 있다”라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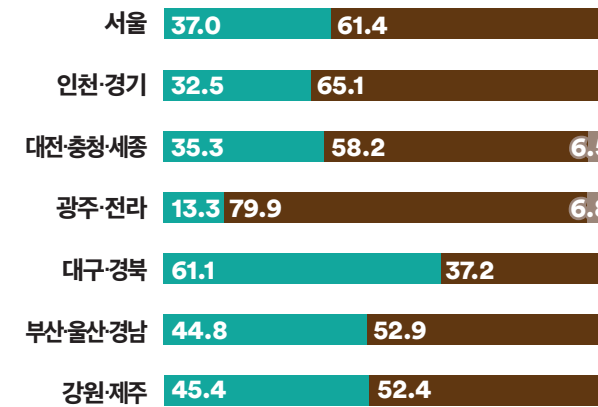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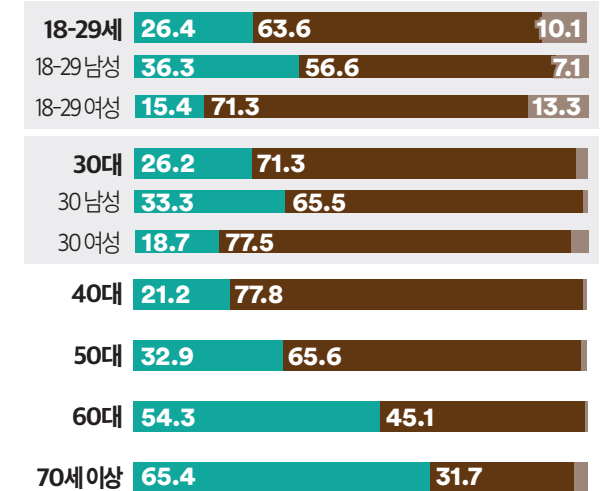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
TK권을 제외하면, 두 조사의 나머지 권역에서는 모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앞섬
30~50대(CATI 18~29세 포함) 연령대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70세 이상은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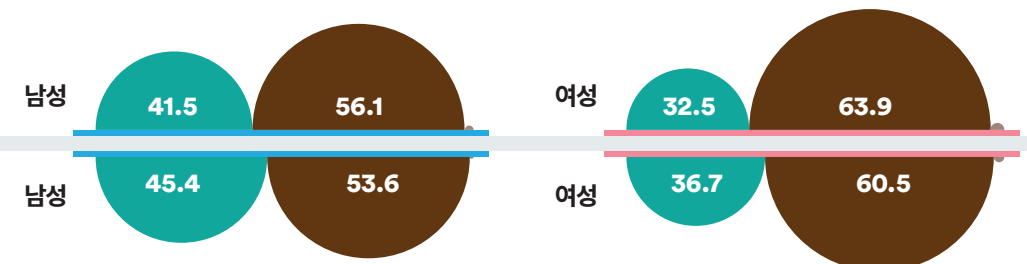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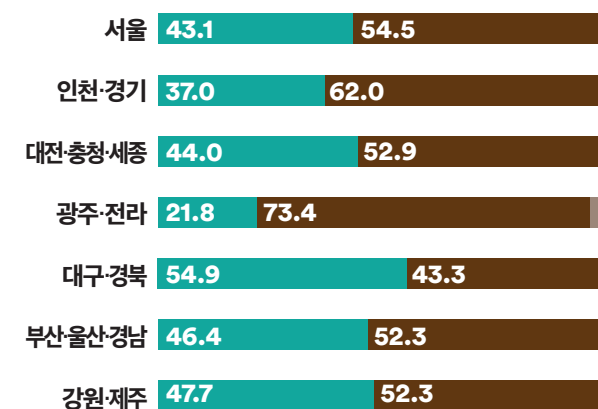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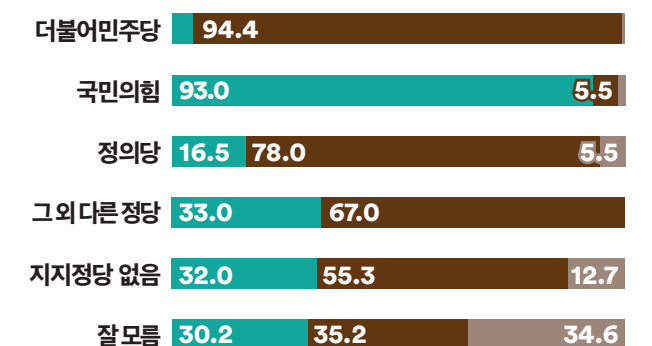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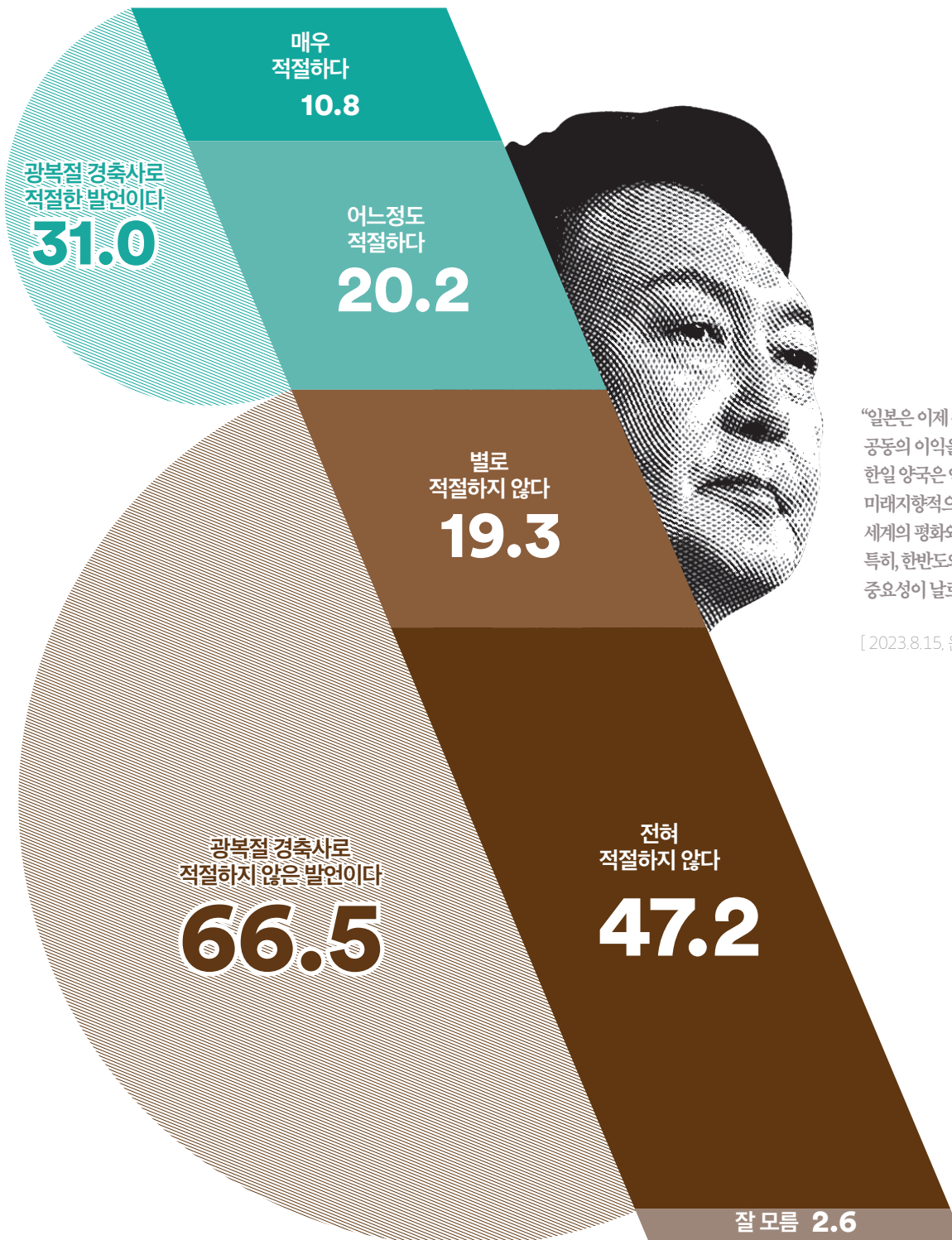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Q.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로서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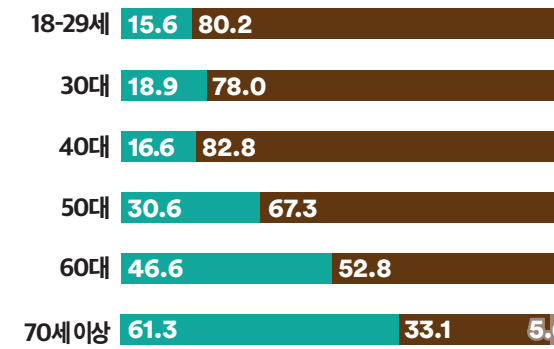
[2023.8.15.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 중]

10명 중 6명 이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 압도적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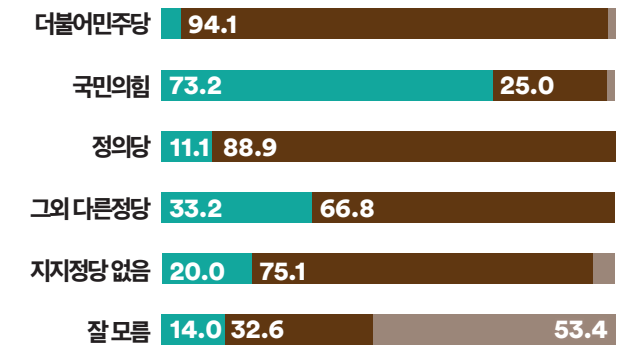
모든 권역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앞섬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앞서고 18-29세 여성층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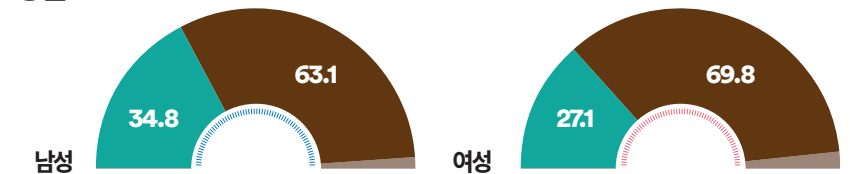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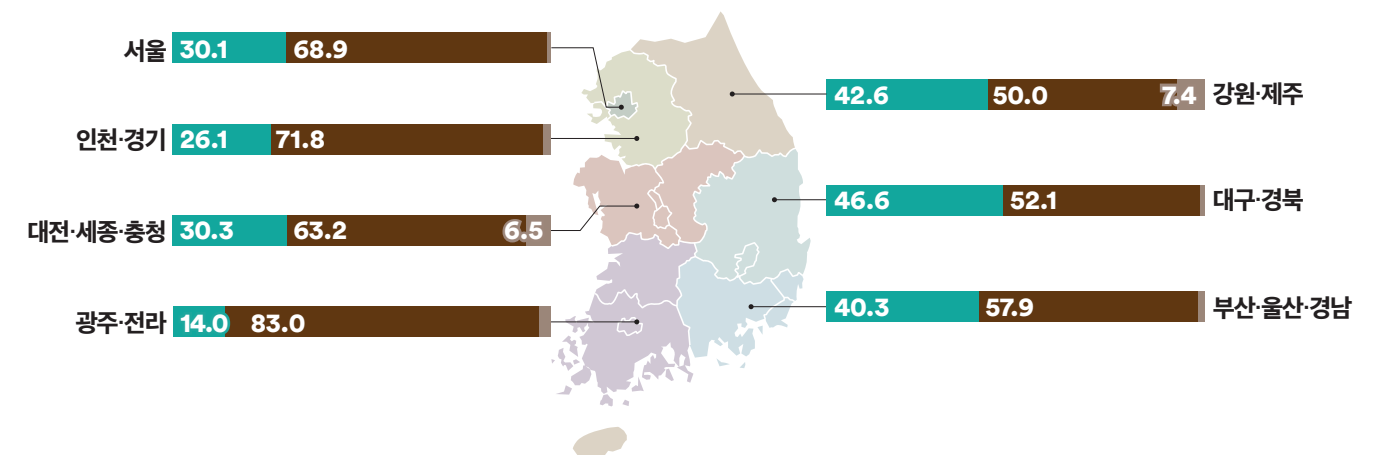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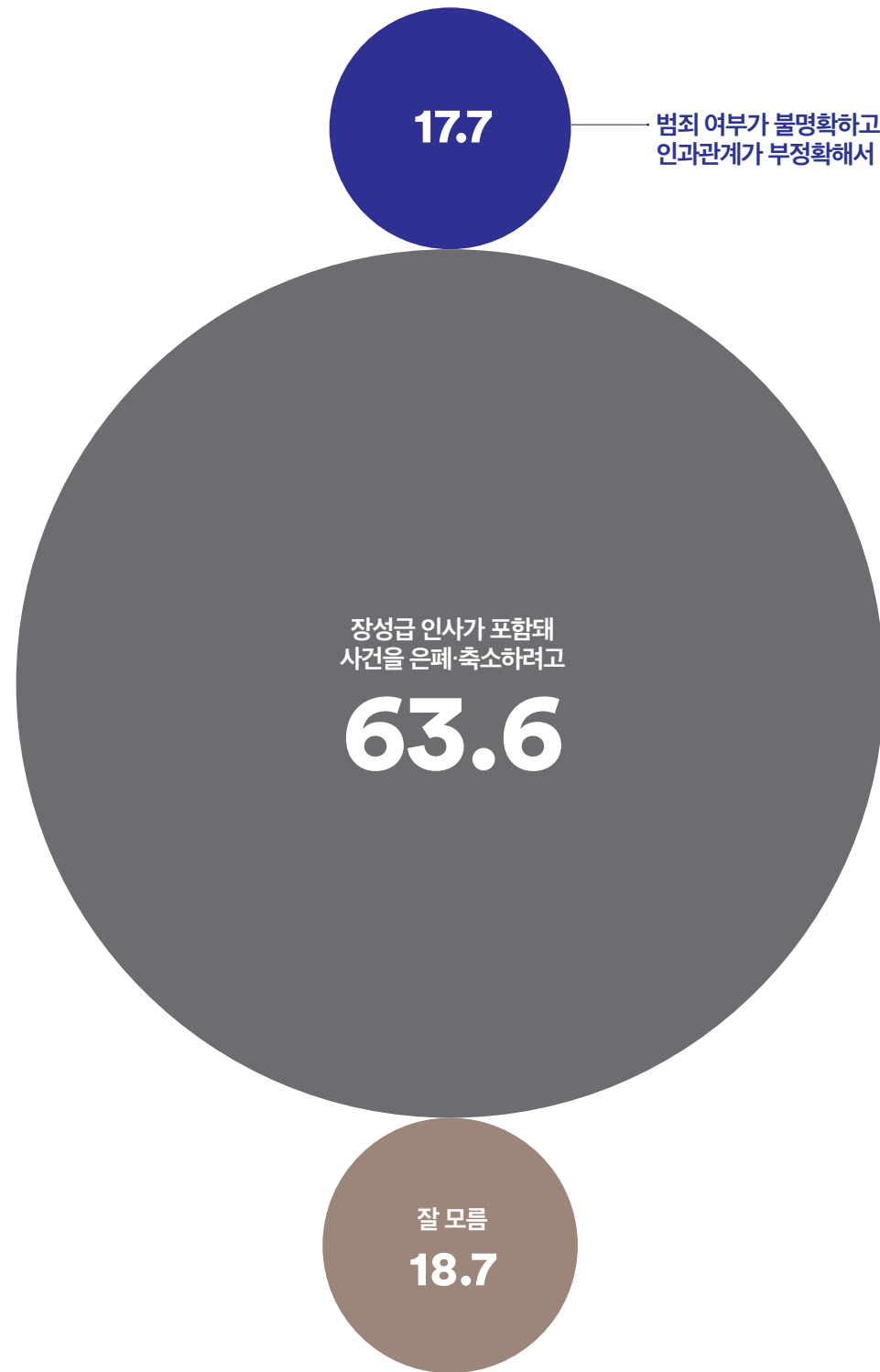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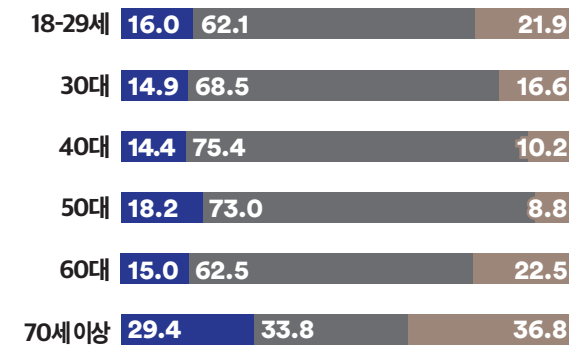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결과 회수 이유

Q.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수사 결과가 지난 8월 2일 경찰에 인계된 지 하루 만에 국방부의 보류 방침으로 회수되었습니다. 수사 결과가 회수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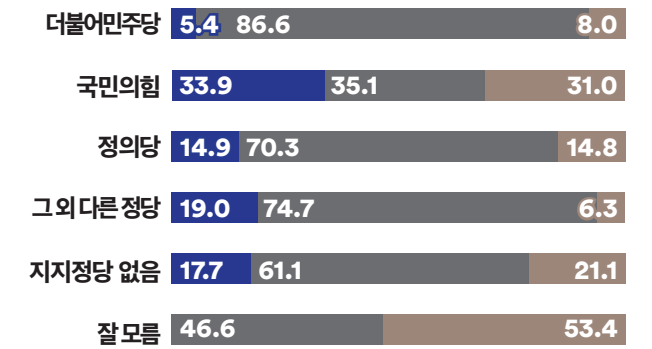


모든 권역과 연령대에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라는 응답 우세
모든 이념성향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모두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라는 응답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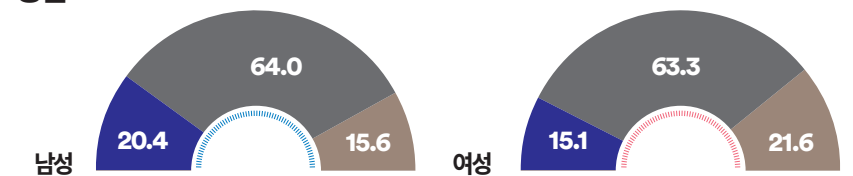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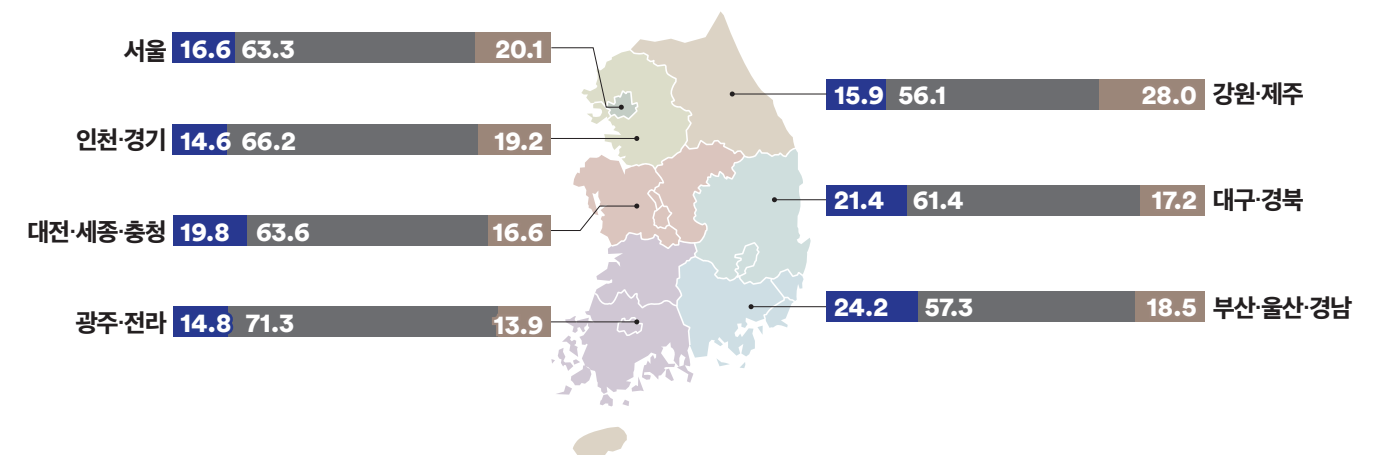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불명확하고 부정확해서 |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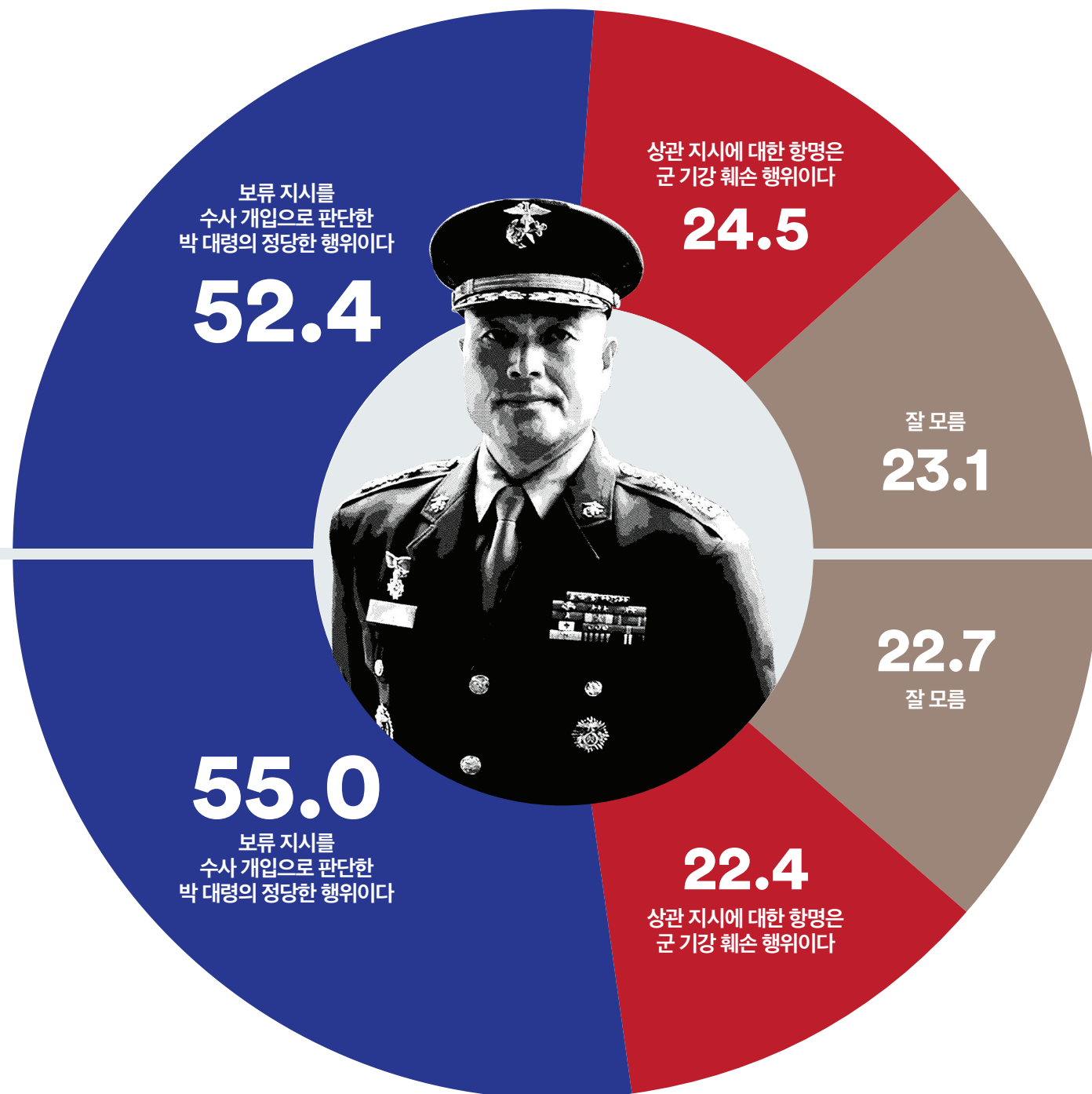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입건

Q. 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인계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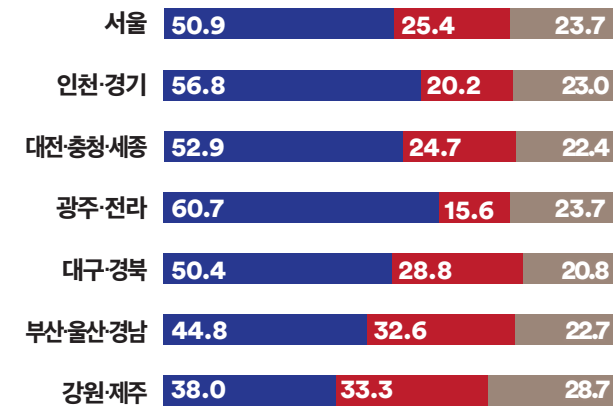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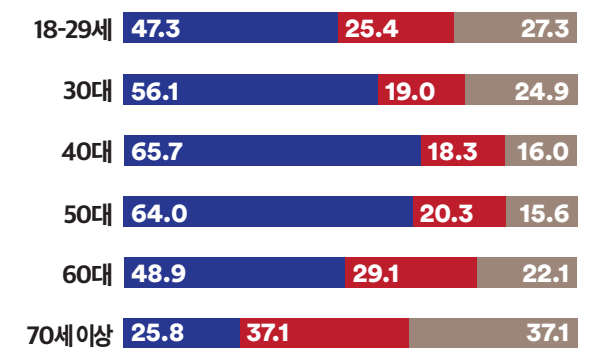


두 조사의 응답자 10명 중 5명 이상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 응답
두 조사의 모든 권역, 60대 이하 연령층에서 '정당한 행위'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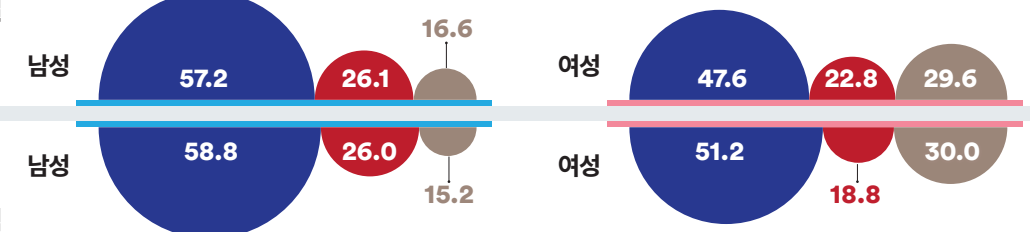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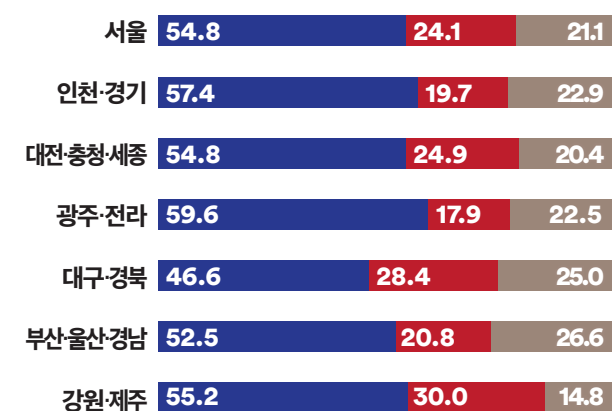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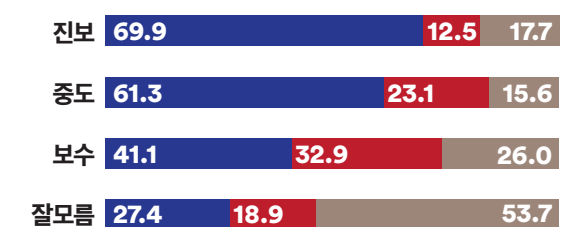


성별

권역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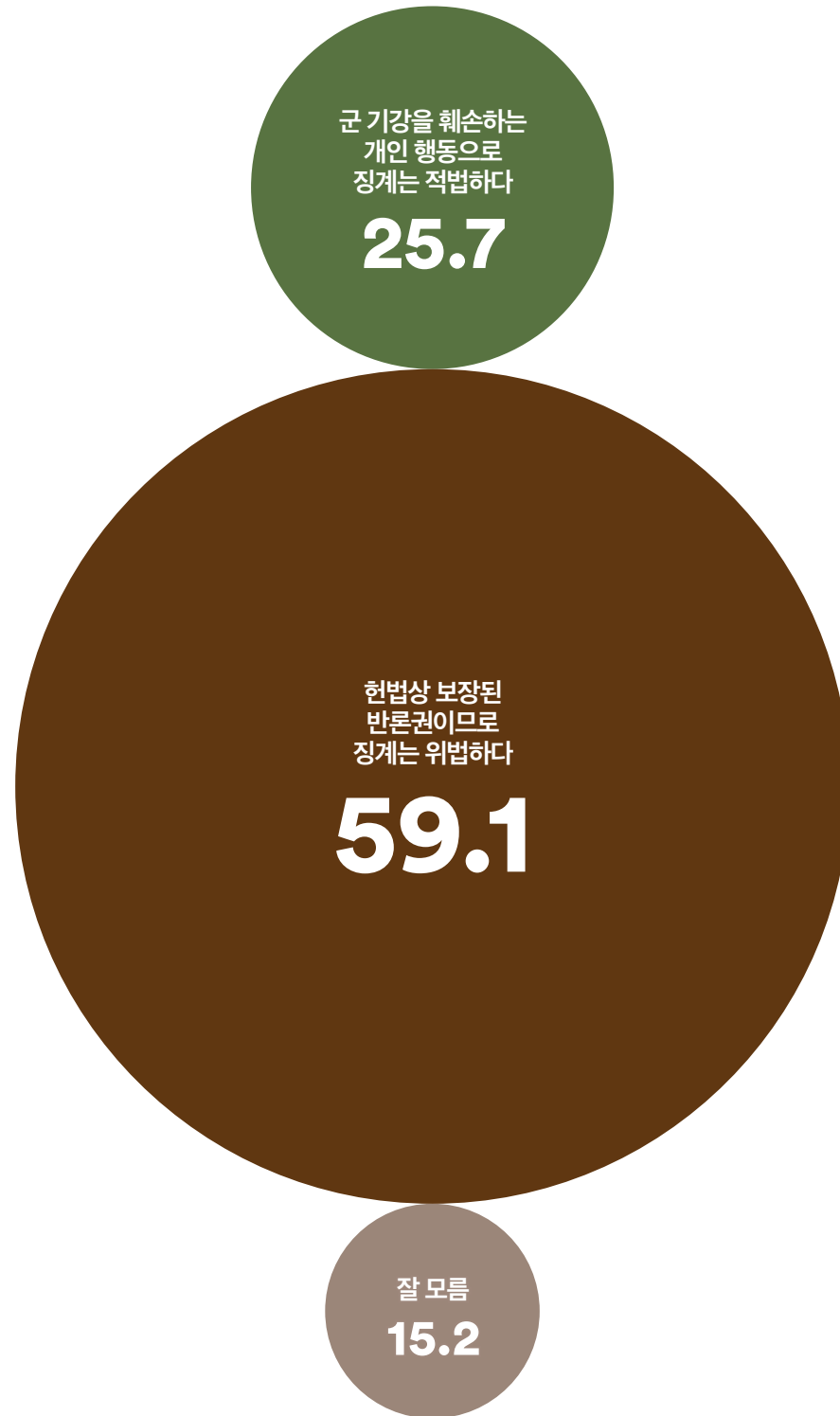


정당한 행위 군 기강 훼손 행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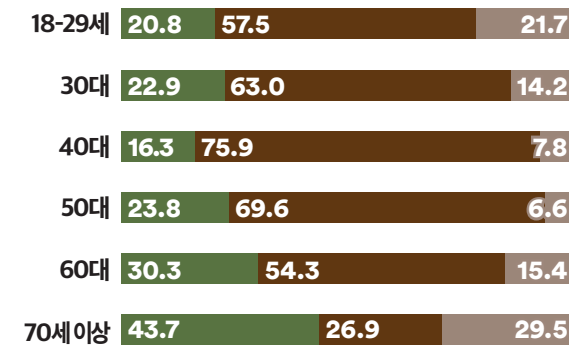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Q. 항명으로 해임된 박 전 수사단장은 방송에 출연해,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사전 미승인 방송 출연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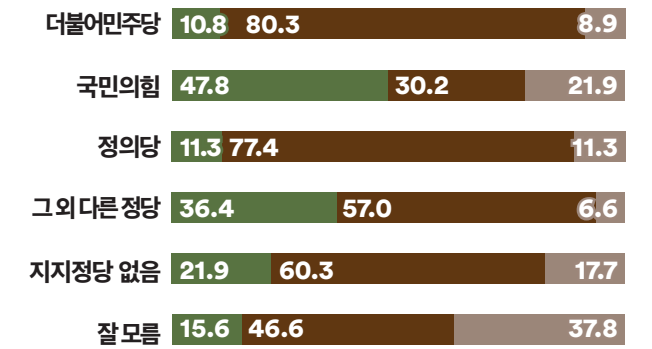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정도는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이므로 징계는 위법하다'라고 응답
모든 권역, 60대 이하 연령대에서 '징계는 위법하다'는 응답이 앞섬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무당층·진보층·중도층 모두 '징계는 위법하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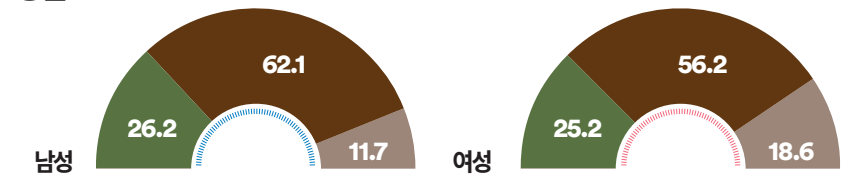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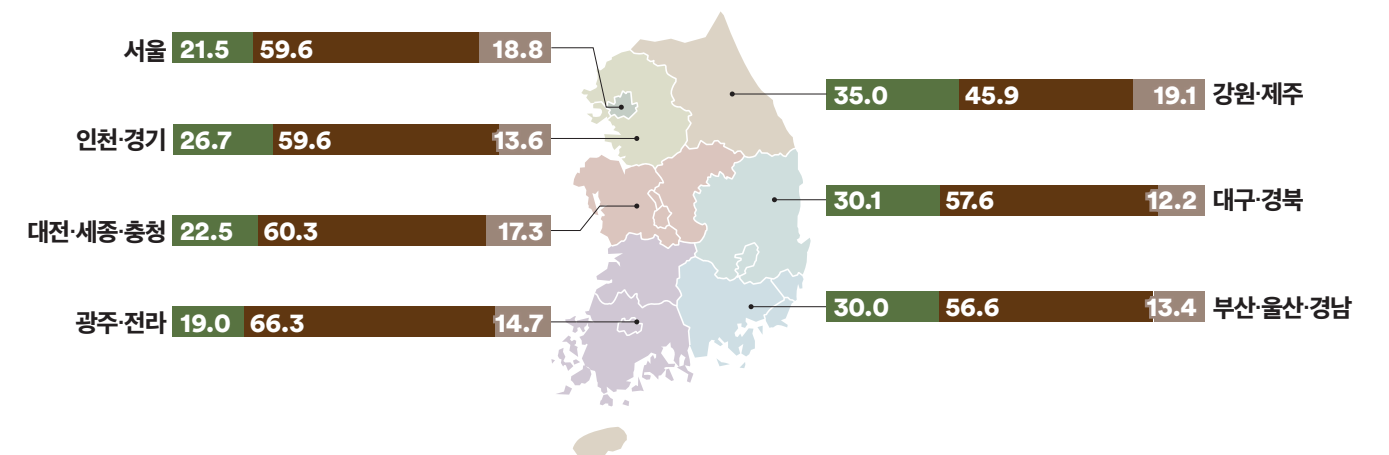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적법하다 위법하다 모르겠다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308_06

여론조사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